

종교교육학연구 제15권. pp.35~56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2.

유교의 정치이론과 종교교육적 구현

崔秉喆

(청주대학교)

《요약》

유교의 이론은 언제나 도덕과 윤리를 교육철학 내지는 정치원리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한마디로 국가공동체를 경영하는 데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수양하고 남을 다스려야 한다는 수기치인'으로 설명된다. 자신의 수양은 바로 학문과 교육이요, 남을 다스린다함은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정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체제의 정치와 교육은 하늘'(天)이라는 절대개념과 이론적으로 불과분의 관계이다. 여기서는 유교의 정치·교육적 해석과 종교교육적 의미연관을 탐색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유교에서 정치적 공동체 이론과 교육적 개별자 이론을 매개하고 절대적 가치로 설정한 것이 하늘의 개념이다. 정치는 하늘의 뜻을 구현하는 일이며 교육의 핵심도 하늘의 뜻과 합일하려는 이론적 근거이다. 정치와 교육이 하늘이라는 절대적·자연적 존재에 의하여 매개되며 그 도덕성에 의하여 종교성이 구현되는 것임을 말해 준다. 가정의 도에는 먼저 어버이부터 모범이 되는 부도(父道)가 있고, 교육에는 사도(師道)가 있으며, 정치적 구현에는 왕도가 있는 바, 군·사·부(君師父) 일체가 성립된다. 이러한 유교의 공동체 이론은 하늘을 절대적 존재로 인식, 정치와 교육적 합일을 이루며 마침내 종교교육적 구현을 이루고자 하는 변증법적 통일성을 지닌다 할 것이다.

핵심 주제어: 천명(天命), 민심(民心), 천·왕·민 삼위일체(天·王·民 三位一體), 홍범구주(洪範九疇), 도덕성 회복(道德性 恢復).

I. 머리말

대자연의 모든 생명체는 이 땅에 나면서부터 나름대로의 집단을 형성하며 삶을 영위한다. 사람 역시 하늘로부터 주어진 상황과 한계 속에 존재하는 한 일정한 형태의 집단을 형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옛날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가족을 최초의 기본단위로 가족공동체라는 일정한 집단을 형성하며 삶을 영위하여 왔다. 오늘날 지구촌이 하나의 세계로 변화되는 추세도, 따지고 보면 먼 태고로부터 끊임없는 가족공동체의 변모와 확대된 양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그런 와중에서 홍망성쇠와 잡다한 인간관계가 복잡 다양하게 형성,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역사로 채색될 뿐이다.

유교이론 역시 처음부터 가족공동체이론에 기초한다. 가족이 씨족을 낳고, 씨족이 다시 부족을 만든 후 또다시 커다란 국가(國家)를 형성, 점차 여러 부족국가들이 이합·집산하여 마침내 거대한 천하(天下國家)로 확대되어 간다는 이론적인 틀이다. 유교에서 흔히 말하는 국가¹⁾라는 개념만 보더라도 그 자체 속에 가족공동체의식이 함축되어 있음은 자명하다.¹⁾

그렇다면 국가공동체는 어떤 원리에 따라 어찌 이끌어져야 하는가?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국가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현상을 정치라고 일컫는다. 다만 그 정치적 원리와 현실이 어떻게 적용 발전하는가에 달려있을 뿐이다. 역대로 정치적 지배이론에는 덕의 논리와 힘의 논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힘의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나라라도 공동체간의 평화와 안녕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되는 선의의 도덕과 윤리를 전제하여, 불의와 범죄를 척결하는 법이 마련될 뿐이다. 도덕과 윤리는 종교와 교육으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범죄행위는 그 결과에 따라 법에 의하여 척결한다.

유교의 이론은 언제나 도덕과 윤리를 교육 내지는 정치원리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국가공동체를 경영하는 데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수양하고 남을 다스

1) 尾形勇, 『中國古代의 家와 國家』, 岩波書店, 序論(1쪽-6쪽). 그는 유학사상의 근본이 가족주의에 있다고 전제, 따라서 그 근본논리도 家와 國家의 초석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의 정치조직 역시 일종의 家長政治(Patriarchy)이며, 가족은 천하의 원형(Prototype)이라고 간주하였다. 이를테면 가족주의적 국가관을 제시한 것이며, 중법질서를 통한 씨족적 질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려야 한다는 수기치인'(修己治人)으로 설명된다. 자신의 수양은 바로 학문과 교육이요, 남을 다스린다함은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정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체제의 정치와 교육은 하늘'(天)이라는 절대개념과 이론적으로 불과분의 관계를 맺는다. 그리하여 유교의 종교적 해석과 의미연관을 탐색해 보려는 것이 본 논문의 취지이다.

II. 유교의 공동체이론과 정치적 이념들

1. 천명론(天命論)

유교적 국가공동체에 있어서의 질서체계는 무엇보다 먼저 하늘'을 지고지선한 절대적 실체로 전제하여 왔다. 하늘은 인간의 삶과 동떨어진 피안의 관념(G0d)이 아니라, 바로 나와 더불어 항상 함께 하는 현실적 존재이다. 특히 유교가 말하는 하늘은 고정된 관념이 아니요,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절대적 실체개념으로써, 모든 질서체계의 기준이며 행동양식의 근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관념은 사상의 발달과 더불어 점차 추상화되었고, 철학사 가운데 가장 함축성있는 의미로 인식되었다. 하늘은 구체적인 형상과 질료로서 규명될 수 없는 형이상적 존재요, 자기동일성만 유지할 뿐 개념적 정의는 분명치 않다.

유교는 국가공동체와 관련하여 하늘을 절대적 주재자로 간주하였다. 유교경전에서 천명(天命)·천벌(天罰)·천토(天討) 등의 개념이 이를 반영한다. 뿐만 아니라 하늘은 모든 백성들을 낳았다는 어버이적 존재로 인식하여 왔다. 부모를 하늘 같이 여기는 전통적 의식과 일맥상통한다. 이를테면 『시경』에서 하늘이 모든 백성을 낳았다'라든가, 『서경』에서 하늘이 백성을 내리셨다', 『맹자』의 하늘이 이 백성을 내셨다'라는 표현에서 하늘이 모든 백성을 낳은 어버이적 입장을 나타냈고, 『서경』에서 "오직 천지는 만물의 부모"라는 직접적인 표현도 이를 입증한다. 2) 더욱이 하늘이 "천자(天子)를 백성의 부모로 만들어 천하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다" 3) 는 『서경』의 말처럼, 왕을 하늘의 아들이라는 부자관계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때의 왕은 하늘의 직무대행자가 된다.4)

이와 같이 유교에서는 하늘을 절대적 주재자이며 가족공동체의 어버이로 인식

2) 『詩經』大雅 蒸民 : "天生蒸民", 『孟子』: "天降下民 有物有則", 『孟子』: "天之生此民",

『書經』周書 泰誓上: "惟天地萬物父母 惟人萬物之靈長"

3) 『書經』周書 洪範: "天子作民父母 以爲天下王"

4) 『書經』虞書 皋陶謨: "天工人其代之"

하여 왔다. 유교가 종교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늘은 모든 방면에서 인간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개념이다. 하늘은 인간에 대하여 본질적이고 직접적이며,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큰손'으로 비유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교에서 “하늘은 우주만물의 주재자로서 우주만물을 창조·지배·감독한다는 천명사상의 주체이다.”⁵⁾ 공자는 “50세에 天命을 알았다”고 하였고,⁶⁾ 맹자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천명 아님이 없다”⁷⁾고 역설하였다. 우주자연의 공간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사물의 세계가 천명이라는 울타리 안에 존재함을 뜻한다. 산을 뽑아내며 세상을 덮는 기개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하늘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군자일수록 능히 천명을 알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성을 다 발휘한다는 논리이다. 곧 하늘이 인간은 물론 만물을 주재하고 다스린다는 천명정치의 이론적 근거이다. 『중용』에 의하면 “천명을 일러 성(性)이라”⁸⁾ 하였다. 이는 천지자연의 본질을 말함이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물자체의 선천성을 의미한다. 하늘이 이 땅에 백성을 내리실 때에 이미 인(仁)·의(義)·예(禮)·지(智)의 인성(人性)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인성은 곧 천성(天性)이다. 천지자연의 속성이 인간에게 온전히 주어진 것이니 만큼 천성이며 동시에 인성이므로, 천성과 인성은 같은 하나이다.

인간의 천성은 요·순과 같이 모두 착한 존재라고 맹자에 의하여 분석되었다. 다만 타고난 기질이 사람마다 각각 달라서 보통사람들은 그 착한 천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온전히 유지조차 못할 뿐이다. 그런데 만약 어떤 총명과 예지로서 그 천성을 다하는 사람이 세상에 출현한다면 하늘은 반드시 그에게 명하여 모든 백성의 임금과 스승이 되게끔 하여, 그로 하여금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고 또 가르치게 해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천성을 회복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⁹⁾ 이와 같이 하늘은 덕이 큰 사람에게 그 뜻을 대신하여 백성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인간성을 회복시키도록 다스리는데, 이를 간접적 천명정치'라고 하는 바 유교의 정치철학에 있어서 천명과 인성을 일치시키는 유교의 종교철학적 근거가 된다.

2. 민본론(民本論)

5) 『新譯孟子』, 安炳周 외역, 玄岩社, 1967, 92쪽

6) 『論語』 爲政편: “五十而知天命”

7) 『孟子』 盡心章句上: “孟子曰 莫非命也 順受其正”

8) 『中庸』 第1章: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9) 『大學』 序文: 蓋自天降生民 則既莫不與之以仁義禮智之性矣 然其氣質之稟或不能齊 是以不能皆有以知其性之所有而全之也 一有聰明叡智能盡其性者出於其間 則天必命之以爲億兆之君師 使之治而教之 以復其性

앞서 유교에서 하늘과 백성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 파악되었다. 하늘과 사람을 유교에서 흔히 천인합일(天人合一)로 규정한다면, 하늘과 백성과의 관계는 정치적으로 천민일치(天民一致)관계로 규명된다. 그것은 민심이 천심이라'는 유교의 격언과 같이 하늘의 마음과 백성의 뜻이 같다는 정치적 의미를 집약한 표현이다. 『서경』에 의하면, “하늘이 본다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보는 것 자체요, 하늘이 듣는다는 것도 우리 백성들이 듣는 것 자체이다”, 또는 “하늘의 총명함은 우리 백성들의 총명함 자체요, 하늘이 밝고 두려운 것은 바로 우리 백성들이 밝고 두려움 자체이니, 상하가 통달된다” 10) 라고 함으로써, 하늘의 뜻과 백성의 뜻이 하나임을 뜻하는 천민일치'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탕왕(湯王)을 도와서 하나라를 토벌하고 상나라를 세운 이윤(伊尹)은 자신을 천민' 가운데 선각자임을 자임하며, 천민'(天民)을 하나의 개념으로 사용, 천'과 민'의 통일성을 나타낸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이 유교가 말하는 민본사상의 근거이기도 하다.

『맹자』 만장장구에 의하면, 요제(堯帝) 다음으로 순제(舜帝)가 등극한 천자의 자리를 놓고 만장이라는 제자가 “요제가 천자의 자리를 순에게 물려주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하고 물었을 때, 맹자가 대답하기를 “아니다. 천자(堯)라고 해서 천자의 자리를 임의로 남(舜)에게 줄 수 없다” 그 자리는 “하늘이 준 자리이고, 인민이 준 자리이다”라고 함으로써, 하늘과 백성들의 뜻에 의하여 왕위가 결정되는 자리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말 역시 천심과 민심이 결합하는 천민일치사상의 일환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맹자가 “하늘은 말하지 않는다”(天不言)고 말한 대목이다. 하늘은 말없는 존재이므로, 따라서 하늘의 의사는 결국 민의'자체라 할 수 있으며, 결국 민의에 의하여 왕위가 결정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민본사상은 천민일치의식으로 시작된 개념이다. 민본'이란 말은 원래 [서경]의 “백성은 나라의 근본(民有邦本)이니 근본이 견고해야 나라가 안정되리라” 11) 한 대목에서, 백성을 상징하는 민'과 근본을 뜻하는 본'이라는 글자로 합성화된 개념이다. 이 말은 『서경』에서 우왕(禹王)의 손자인 태강(太康)이 천자의 자리를 계승한 이후 방탕과 사냥으로 정사를 그르쳤다. 어느 날 태강이 100 일간의 사냥을 떠나자 그가 돌아오는 길목을 막고 제후였던 예(羿)가 천자의 자리를 빼앗아 버렸다. 이 때 태강의 다섯 아우들이 나라를 잃고 한탄한 나머지, 할아

10) 『書經』周書 泰誓中：“天視自我民視，天聽自我民聽”，虞書 皋陶謨：“天聰明自我民 聰明，天明畏自我民明威 達于上下”

11) 『書經』夏書 五子之歌：“民惟邦本 本固邦寧”

버지가 생존시 평소 강조하던 교훈을 5가지 노래로 지어 불렀는데, 바로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말은 그 첫번째 노래 속에 담긴 대목이다. 따라서 민본사상은 바로 『서경』의 이 대목에 근거하며, 민본사상 속에는 정치를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백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강조한 우왕의 애민정신에서도 엿볼 수 있다. 민본사상은 민심(民心)·민의(民意)를 본질로 하는 사상이다. 민본사상의 근거가 비록 천민일치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늘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존재요, 다만 자연현상이나 징험을 통한 간접적 표현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유교는 민의·민심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하늘의 뜻도 민심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서경』에 의하면,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바는 하늘도 반드시 따른다”¹²⁾

고 하였다. 이 말은 하늘의 의사가 곧 백성들의 의사에 따라 반드시 결정되는 것임을 밝혀 준다. 이러한 민욕천종'(民欲天從)의 논리는 오늘날 민주주의 사상보다 더욱 민심의 절대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늘은 절대적 존재이다. 그러나 유교에서는 하늘이 개인적으로는 자연적이며 절대적 존재로 인식할지라도, 정치적으로는 하늘도 반드시 백성의 의사를 따른다는 민심의 절대성을 강조한다. 흔히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 말도 따지고 보면 바로 민심이 천심에 우선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모든 정치적 과제는 민심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당위성이 성립됨을 알 수 있다.

3. 왕도론(王道論)

하늘과 백성에 의하여 왕위에 오르면 반드시 천명과 민심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왕의 도리이자 의무이다. 맹자는 천자의 자리가 천자 개인의 임의로 결정되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준 자리요 백성이 준 자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므로 왕이 민심에 따르는 정치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유교에서 민심·민의에 따르는 정치행위가 바로 올바른 정치이다. 왜냐하면 올바른 자체는 민심·민의가 기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공자는 왕에 대하여 왕다운 왕의 정치를 강조하였다. 이는 공자의 정명사상에 근거한다. 정명사상은 『논어』에 표현된 정명'(正名)에 근거하며,¹³⁾ 주어진 이

12) 『書經』周書 泰誓中：“民之所欲 天必從之”

름에 걸맞게 바르게 한다’는 뜻이다. 공동체 안의 조직 속에는 구성된 상호간에 주어지는 명칭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자식에 대한 아버지, 아버지에게 대한 아들·딸, 스승에 대한 제자라는 이름 그리고 왕에 대하여 신하라는 이름의 인간관계가 성립되어 각각의 그 명칭이 된다. 일정한 조직 속에 붙여지는 일반적인 명칭을 통칭하여 ‘이름’이라 한다. 정명론의 이름에는 반드시 그 이름에 걸맞는 직분이 주어지므로, 그 주어진 이름은 곧바로 그 직책에 자리한 사람으로서 제할일 제구실을 다하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는 당위성이 존재한다.

제나라 경공(景公)이 정치를 물었을 때, 공자는 엮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답게’ 자신의 처해진 입장에서 각각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⁴⁾ 그것이 바로 정명이요, 정도(正道)이다. 따라서 왕은 왕의 정도가 있고, 신하는 신하의 정도가 있으며, 스승은 스승의 정도가 있다. 이 때의 왕의 정도가 바로 왕도’이다.

왕도는 왕다운 왕의 도리이다. 왕다운 왕의 도리란 왕에게 주어진 제구실 제역할을 다하는 나라 다스리는 길을 말한다. 게다가 공자는 정치란 올바른 자체’로 간주하여, 정의로운 사회 또는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 정치적 행위의 원천이 곧 정명’이며, 왕도임을 말한다.

맹자는 왕도를 패도와 구분하기도 하였다. 왕도는 덕(德)으로써 인(仁)을 실천하는 정치이고, 패도는 힘의 정치를 강구하면서 겉으로는 선정을 베푸는 듯 꾸민 거짓정치를 말한다. 왕도를 하게 되면 백성들이 가슴속에서 저절로 기꺼운 마음이 우러나 진실로 지도자를 따르게되는 정치이며, 패도를 하면 따르기 싫음에도 백성들은 힘이 부족한지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복종하는 억지의 정치가 된다.¹⁵⁾ 따라서 유교에서는 힘의 정치나 거짓정치를 혐오하며, 인의와 도덕에 의한 왕도정치를 지향하고 있다. 공자는 덕으로 하는 왕도정치를 북극성이 하늘 가운데 위치하니 밤하늘의 모든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형상으로 비유한 바 있고,¹⁶⁾ 맹자는 70여 제자가 항상 공자를 곁에 모시고 받드는 모습을 왕도의 원형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왕도는 현실적으로 경제적 안정으로부터 비롯된다. 바꾸어 말하면 경제적 안정없이 왕도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논리이다. 그리하여 맹자는 왕도의 시작을 백성들이 “산 사람을 부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지낼 때, 경제적으로 유감스런 마

13) 『論語』 子路：“子路曰衛君 待子而爲政 子將奚先 子曰 必也正名乎”

14) 『論語』 顏淵：“齊景公問政於孔子，孔子對曰，君君臣臣父父子子”

15) 『孟子』 公孫丑章句上：“孟子曰 以力假仁者霸 霸必有大國 以德行仁者王 王不待大 湯以七十里 文王以百里 以力服人者 非心服也 力不贍也 以德服人者 中心悅而誠服也 如七十子之服孔子也”

16) 『論語』 爲政：“爲政以德 譬如北辰 居其所 而衆星共之”

음이 없다면 이때부터 왕도는 시작될 것이다” 17) 라고 말함으로써, 왕도의 출발이 경제적 안정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궁극적으로 왕도는 민심과 민의에 따르는 정치라고 규정할 수 있다. 왕의 자리는 천명을 받아 왕위에 오른다. 따라서 왕이 천명을 어기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동양에서 왕은 옛날부터 하늘에 천제(天祭)를 지내곤 하였다. 그것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올바른 정치를 할 것을 맹세하는 의례이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하늘은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민심을 따르는 입장이었다. 민심은 곧 천심이다. 또한 민의는 곧 절대적이요, 불가피한 지상명령이다. 그렇다면 모든 정치적 행위는 민심·민의에 따라야 함은 자명하다. 만약 임금이 민심·민의를 도외시하고 독단과 거짓과 탄압의 정치를 한다면 민심이 등을 돌리게 된다. 민심이 등을 돌리면 자연히 하늘의 뜻이 민심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천명은 항상 같은 한 사람에게 무조건 왕위를 지속시키게 하지 않는다. 왕도를 지키지 않고 거짓과 힘의 정치가 극에 이르면 하늘과 백성은 뜻을 합하여 천민일치에 따라 그 임금을 교체하게 한다. 이것을 유교에서 혁명이라 한다. 혁명은 천명의 변혁을 뜻한다. 『주역』 혁괘(革卦)에 의하면, “탕왕과 무왕이 혁명을 일으켰으니, 하늘이 따르고 만인이 호응하였다” 18) 고 하였다. 이는 탕왕이 하(夏)나]라의 폭군인 걸(桀)을 무너뜨린 일과 은(殷)나라의 폭군인 주를 멸하고 각각 천자가 된 사실을 혁명(革命)으로 규정한 대목에 근거한다. 이를테면 하늘과 백성이 화합하여 새로운 혁명의 길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결국 유교의 정치사상은 천명과 민심과 왕도가 하나를 이루는 천·왕·민의 삼위일체사상의 발로라 아니할 수 없다.

Ⅲ. 유교의 학문관과 교육적 구현

1. 교육의 개념

유교에 있어서 정치가 공동체적 지도체계라고 한다면, 교육은 한사람 한사람의 인격에 대한 개인적인 지도체계라고 할 수 있다. 한사람 한사람을 모두 훌륭한 인격체로 길러내는 국가적 과제가 교육이다. 공자는 나라의 인구가 많을 경우, 다음 단계는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일이고, 그런 연후에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하였다. 19) 이미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면 경제적 풍요가 일차적 과제이고 다음으로 교

17) 『孟子』 梁惠王章句上：“養生喪死無憾 王道之始也”

18) 『周易』 革卦：“湯武革命 順乎天而應乎人 革之時大矣哉”

육이 필수임을 나타낸 말이다.

서구적으로 개념으로서의 교육(Education)은 인간이 소유한 바를 끄집어낸다'는 의미의 Educare'를 어원으로 삼고, 인간을 성장·발달시키는 사회적 기능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주어진 공동체는 일정한 사회적 조건과 질서체계를 요구한다. 사회적 조건과 질서체계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인격완성과 성장발달을 위하여 공동체적 작용은 필수적이다. 인간의 성장·발달과 관련한 그 작용이 비록 자연적 요인이건 정신적 감화이건 적어도 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이라는 광의의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따라서 동기부여로서의 교육은 진리와 정의에 대한 규명, 인간과 인간과의 융화관계 그리고 일정한 사회적 목표와 이상을 전제한다. 유교에서도 이러한 진리와 정의의 규명을 위한 선비정신'을 계승하며, 인간과 인간과의 융화관계를 위한 질서체계로서의 예악문화'(禮樂文化)를 정립하였고, 일정한 사회적 목표와 이상을 위하여 대동사회'를 설정한 바 있다. 더욱이 개인의 인격적 완성의 궁극적 목표를 성인(聖人)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지속적인 수양'활동을 지향하며, 대학·소학 등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성장하는 세대들의 진리탐구와 인재를 교육하여 왔다. 따라서 유교의 교육은 사회적 요구와 개인적 실천의 통일을 그 본질로 삼는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중용』에 의하면

“천명을 본성이라 하고, 성품대로 따르는 것을 도라 이르고, 도를 수행하는 것이 교육이다“ 20)

라고 하였다. 이는 교육의 본질이 '도의 수행', 즉 수도'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나의 수신행위가 동시에 남까지도 본받게 한다는 의미로서의 가르침이다. 훌륭한 인격은 도를 수행함에 있고 도의 수행을 통해서 배우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감화되어 그 도를 함께 수행할 때 교육이 발휘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모든 사람이 도를 깨우쳐 수행한다면 자신의 본성, 즉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도덕성을 자각하게 되며 그리고 그 인간의 본성을 다 발휘한다면 마침내는 하늘의 명령이요 천하의 진리인 천명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 스스로가 실천하는 그 도의 수행자체를 교육으로 간주하는 한, 결국 유교의

19) 『論語』子路：“子適衛 冉有僕 子曰庶矣哉 冉有曰 既庶矣 又何加焉 曰富之 曰既富 矣 又何加焉 曰教之”

20) 『中庸』第1章：“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종교교육은 하늘로부터 받은 인간의 본성을 도로 삼아서 스스로 본받고' 또한 남까지 본받게'하는 상반된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성립시킴으로써 변증법적 통일성을 갖기도 한다.

고대로부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국가적 과제의 하나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학문을 탐구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왔다. 그 대표적인 교육기관은 국립대학으로서의 태학'(성균관)과 초등 교육기관으로서의 소학'(서당)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중등교육기관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사학'(四學)이, 지방도시에는 360여개의 향교(鄕校)를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의 남한에는 234개의 향교가 실존하고 있으며, 성균관과 더불어 석전'(釋奠) 등 문묘향사와 유교경전 교육에 힘쓰고 있다. 소학은 사람이 태어나 8살이 되면 왕이나 정승의 자제로부터 일반 서민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의무적으로 모두 입학시킨 교육기관이고, 태학은 왕 또는 정승의 맏아들이나 일반 서민들의 우수한 자제들을 선발하여 가르친 교육기관이다. 소학교에서는 청소하는 일과 남에게 응대하는 일과 진퇴의 절도 및 예·악·사·어·서·수(禮樂射御書數)를 교육하였고, 대학에서는 진리를 탐구하며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도를 교육받게 하였다.²¹⁾ 공자는 『논어』 술이편에서 문·행·충·신(文行忠信)을 특별히 사교'(四教)라 하였고, 맹자는 교육적 과제를 인륜'에 두기도 하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에는 반드시 학문과 지식이 필수적 요건이다. 학문과 지식이 결여된 교육은 단순한 훈련이나 기술에 불과하다. 공자는 『논어』 첫머리에서 배움과 익힘을 강조한 바 있다. 유교에 있어서 학문은 서구적인 개념적 파악이나 단순한 지식(Knowledge)의 획득이 아니라 올바른 실천을 전제한 사람됨의 학문이다. 자신의 수양과 실천을 앞세운 다음에 지식을 탐구하라는 명제이기도 하다. 또한 유교의 학문은 도를 수행하는 스승의 가르침을 본받음'자체로 간주되기도 하다.

이와 같이 유학의 특징은 삶의 방법론적 입장에서는 도학(道學)이 되며, 그 목적론적 입장에서는 성학(聖學)이 된다. 그러므로 성인을 학문의 목표로 삼고, 성인의 도를 실천함으로써 학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도학이다. 만약 왕이 성왕(聖王)의 도를 실천할 때 왕도이다. 도학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자신의 수양을 뜻하는 것인 바, 선생이 가르치는 내용이나 배우는 학생이 본받는 내용은 모두 같은 하나이다. 바로 그 내용은 인간의 본성을 최대한 구현하는 일이며, 이때 비로

21) 『大學』 序文: “人生八歲 則自王公以下至於庶人之子弟 皆入小學 而教之以灑掃應對 進退之節 禮樂射御書數之文 卿大夫元士之適子 與凡民之俊秀 皆入大學 而教之以窮 理正心修己治人之道 此又學校之教 大小之節所以分也”

소 천명까지 인식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유교적 학문에는 두 가지 성격이 존재한다. 하나는 당위적 실천에 대한 본받음
이요, 다른 하나는 현대적 의미의 진리탐구이다. 전자가 현실적이며 동적(動的)인
학문이라면, 후자는 이론적이며 정적(靜的)인 학문이라 할 수 있다. 공자가 『논
어』 학이편에서 “행하고 나머지 힘이 있으면 곧 글을 배운다” 고 하듯,²²⁾ 유교는
후자보다는 전자의 실천적 행위에 학문의 비중을 두어 왔다. 공자가 “배우고 생각
하지 않으면 고루하게 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위태롭다”²³⁾ 고 하였
는데, 결국 동적인 학문과 정적인 사유는 보편적 지식과 주관적 판단을 동시에 성
립시키는 불가분적 실천관계임을 음미해 준다.

2. 교육과 학문의 일치

희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규정하여 인
간을 동물의 한 아류로 간주하였다. 서구에서는 아직도 인간의 조상을 원숭이로
간주하며 태초의 인간(Homo sapiens)을 유원인'(類猿人)이라 하였다. 그 이유는
만물의 구분과 분류상 인간을 최하위의 종개념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만물(존재
자)을 최고의 유개념'으로 설정한 다음, 만물'의 하위개념으로 생물과 무생물을
두고, 다시 생물의 하위에 동물과 식물과 미생물을 두며, 다시 동물의 하위에 짐
승류·조류·어류로 분류한 다음, 다시 짐승류 아래 고양이과·원숭이과 등으로
구분한 다음 원숭이과 하위에 사람을 설정함으로써, 인간이 구분 분류상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에, 유교에서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정의하였다.²⁴⁾ 만물의 영장이란
만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신령스러운 어른이라는 뜻이다. 인간은 모든 물건 가운
데 가장 으뜸이 되는 존재로서 최상위의 개념으로 설정, 만물 위에 위치시킨다는
논리이다. 지구상 어떠한 존재도 인간의 지혜에 감당할 수 없으며, 어떠한 생명체
도 아직까지 인간을 능가하지 못한다. 인간만이 사물의 근본원리를 파악할 수 있
고, 인간만이 지혜를 발휘하여 만물을 요리할 수 있으며, 인간만이 지적인 작용을
통하여 수준 높은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원리의 파악이나 지혜
의 발휘 또는 문화의 창출은 모두 학문과 교육의 본질적 과제가 된다. 학문과 교
육이 없이는 인간사회의 참다운 가치창조는 불가능한 일이다.

22) “行有餘力 則以學文”

23) 『論語』爲政：“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24) 『書經』周書 泰誓上：“惟天地萬物父母 惟人萬物之靈長”

유교에서 학문과 교육은 필수적 과제였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인’이었다. ‘성인’이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착한 본성을 다 실천하는 사람으로써, 만세·만인의 스승이 될만한 인물을 뜻한다. 착한 본성이란 『중용』 첫머리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성품’을 말함이고, 맹자가 말한 인·의·예·지를 의미함인데, 성인은 이러한 인성을 모두 다 실천하는 사람을 통칭한 말이다. 공자는 일찍이 요제·순제·우왕·탕왕·문왕·무왕 및 주공 등을 성인으로 칭송한 바 있다. 다만 공자이후로는 공자가 칭송했던 앞서의 성인들 보다 오히려 공자를 가장 훌륭한 성인으로 칭송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자인 자공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막상 공자 자신은 스스로 ‘성인’임을 부정하였고, 다만 자신은

“배우되 싫증내지 않았고, 가르치되 게을리 하지 않았을 뿐이다” 25)

라고 함으로써, 학문과 교육에 열중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자공은 배우되 싫증내지 않았다는 것은 ‘지(智)이고, 가르치되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仁)이니, 지혜롭고 인하시니 선생님은 성인이십니다’라고 결론 내린 바도 있다. 그로부터 유교에서는 성인에 대한 평가를 학문과 교육에 기준을 두게 되었고, 이어 모든 백성들이 이 세상에 탄생된 이래 공자 만한 사람은 없다’고 맹자는 그의 호연지기’(浩然之氣)장에서 칭송하였으며, 26) 후대에 공자를 만세종사’(萬世宗師)라는 최고의 인물로 추앙하게 되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배움의 길인 학문과 가르침의 길인 교육은 상호 대립적 관계이나, 결국 성인이라는 궁극적인 최고의 단계에서는 학문과 교육의 통일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V. 유교, 그 정치와 교육의 종교철학적 통일

1. 자신의 수양과 부모의 도리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 저마다 해야 할 제구실 제할일이 있다. 주어진 자기의 직분과 인적관계 속에 구성되는 명칭과 명실상부한 그 자신의 역할을 직분 상 도리’라고 일컫는다. 이와 같이 자기 직분에 맞는 역할과 제구실에 따른 도

25) 『論語』述而：“子曰 默而識之 學而不厭 誨人不倦 何有於我哉”，『孟子』公孫丑章句上：“昔者 子貢 問於孔子曰 夫子 聖矣乎 孔子曰 聖則吾不能 我學不厭而教不倦也 子貢曰 學不厭 智也 教不倦 仁也 仁且智 夫子 既聖矣”

26) 『孟子』公孫丑章句上：“自生民以來 未有孔子也”

리를 유교에서는 정명'으로 간주하였다. 그것은 곧 정도'이며, 공자 정치철학의 핵심이기도 하다.

직분 상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소의 수신'이 요구된다. 『대학』에서는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수신을 본으로 삼는다” 27) 고 하였다. 수신은 자신의 수양을 뜻하는 말인 바, 평소 자신의 수양이 결국 가정은 물론 국가나 천하를 다스리는 일의 본질임을 말해준다.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수신은 천하를 다스리는 정도'가 된다. 수신'이란 무엇인가? 그 자신을 수양한다는 것이 자신의 무엇을 어떻게 수양한다는 것인가? 깊은 산, 인적 없는 벽지에 가서 자신만이 홀로 조용히 침묵과 정좌로 일관하기만 하면 그것이 수신이 되는 것인가?

유교에 따르면 수신'의 목적은 득도'(得道)에 두었다. 수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찾았고,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들과 그때그때 자기에게 주어진 제할일 제구실을 제대로 잘하면 그것이 수신'이 된다. 따라서 별도의 세계나 인간사회를 떠난 특정의 장소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얻는 그러한 수신'이 아니요, 홀로 있을 때나 남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그때그때 합당한 올바른 행위일만이 수신'이 된다. [대학]에서는 선독'을 말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홀로 있을 때에 행동을 신중히 함'이다.28) 어떠한 시기,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실히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시중지도'(時中之道)라고 한다.

수신'은 제일 먼저 가정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미 부모에 대하여는 자식이고, 형에 대하여는 아우라는 이름의 입장에 처하게 된다. 자식이 되어서는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아우가 되어서는 아우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수신'으로서의 정도'가 되며, 정명이 된다. 『대학』에서는 “...남의 자식이 되어서는 효를 다하고, 남의 부모가 되어서는 자애를 다하고...” 29) 라고 하였다.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효도가 부모나 자식의 마땅한 도리이다. 『주역』에서는 이러한 가정에서 각자가 처해진 처지에 맞게 올바른 도리를 가정의 도'(家道)라 하였다. 그 가인괘(家人卦)에 의하면,

“부모가 부모답고, 자식이 자식다우며, 형은 형답고 아우는 아우다우며, 남편은 남편답고 부인은 부인다우면 가도'가 바르게 되리니, 가정이 바르면 천하가 정립되리라” 30)

27) 『大學』第1章：“自天子以至於庶人 壹是皆以修身爲本”

28) 『大學』第6章：“故君子必慎其獨也”

29) 『大學』第3章：“爲人君止於仁 爲人臣止於敬 爲人子止於孝 爲人父止於慈...”

30) 『周易』家人卦：“父父子子 兄兄弟弟 夫夫婦婦 而家道正 正家而天下定矣”

고 하였다. 이는 가정의 도가 올바르게 세워지면 천하까지도 바르게 정립시킬 수 있는 핵심적 조건임을 말해 준다. 수신으로부터 제가, 그리고 치국과 평천하를 말한 『대학』의 설명과 같은 논리이다.

동물이건 식물이건 생명의 씨앗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보편적 원리이다. 마찬가지로 천하를 좌지우지할만한 큰 덕을 갖추고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그는 자신을 낮추고 힘을 기르며 덕을 쌓아 점차 가정으로부터 사회로 진출함으로서, 마침내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이끌어갈 능력을 갖추게 된다. 『논어』에서는 근본이 세워져야 도가 생긴다'(本立道生)고 하였다. 뿌리가 땅속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어야 그 나무는 줄기가 튼튼하고 잎이 무성하여,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모습은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다스림의 이상적 형상의 본이 된다. 『맹자』는 천하국가의 본은 국가에 있고, 국가의 본은 가정에 있다고 하였다.³¹⁾ 그러므로 훌륭한 지도자는 마치 가정의 부모와 같은 존재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서경』에서는 “천자를 백성들의 부모로 만들어 천하의 왕으로 삼았다”³²⁾ 고 하였는데, 이는 천하 다스리는 지도자를 마치 가정의 부모와 같이 자애롭고 따뜻한 존재로 부각시킨 말이다. 부모처럼 자식에 대해 베푸는 은혜가 가장 현신적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백성 돌보기를 마치 갓난아기를 보살피듯' 하라고 하였고, 또한 백성에 대하여 마치 큰제사(부모제사)를 받드는 듯이 경건하게 임해야 비로소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 맹자가 임금을 위민부모'(爲民父母)라 하여 임금이 백성의 부모와 같은 존재로 인식, 백성이 임금 사랑하기를 마치 자식이 부모를 찾는 정도로 인정'(仁政)과 덕치'(德治)를 강조하였다.

2. 유교교육과 스승의 도리

가정에서의 수신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며, 가도'(家道)의 첩경이다. 가정을 이끌어 가는 부모가 마땅히 그리고 먼저 자식에 대한 도리를 다함으로써 가도가 바로 서고,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국가는 물론 천하까지도 평정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정치란 마치 백성이 자신의 부모처럼 받을 수 있는 경지가 되도록 선정(善政)을 베풀어야 한다. 선정에서 제일 먼저 실천에 옮겨야 할 점은 무엇보다 자식에 대한 교육이다.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나라에 인재가 넘쳐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문화도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31) 『孟子』離婁章句上：“皆曰天下國家 天下之本在國 國之本在家 家之本在身”

32) 『書經』周書 洪範：“天子作民父母 以爲天下王”

유교적 정치이론 속에는 교육과 학문을 무엇보다 중시하였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나 국가가 교육기관을 만들어 나라의 청소년들을 육성시키는 일은 부모의 의무요 선정의 핵심사항이다. 그리하여 사람이 태어나 8살이 되면 소학교에 입학시켜 교육을 받게 하였고, 15세가 되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대학에 들어가서 자신을 수양하고 장차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하였다. 국가에서는 교육자를 스승으로 존경하며, 최고의 인격적인 대우를 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덕망을 갖춘 인재가 지도자가 되어 만민을 선으로 인도하는 선정을 베풀어야 한다. 이는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착한 인간성을 구현하는 교학정치'라고 말할 수 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고 하였다.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형성되는 태아의 인간성을 우리는 선천성이라고 하게 되는 바, 그 태아의 인간성이 착하다는 것이다. 다만 원래는 착한 인간이나 태어난 이후 욕심과 그릇된 판단으로 착하지 못한 일에 빠지게 되어, 성인을 제외하고는 털어서 먼지 없는 사람이 없다. 때문에 하늘은 성인을 통하여 역조창생의 지도자로 삼고 또 스승으로 삼아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착한 본성을 깨닫게 한다는 국가적 과제가 곧 교육의 본질이며 정치의 본질이었다.

유교에서는 일찍이 상고시대 이래로 학교제도를 국가체제의 중요사항으로 삼아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2년(392년)에 이미 국립대학으로서 태학'을 설립하여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였다. 태학은 지방에서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여 장차 국가의 지도자가 될 인물들을 길러내는 중요한 기관이었다. 그리고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도읍지 경주에 국학'을 국립대학(지금의 경주향교)으로 설립하였고, 고려조에 와서는 도읍지를 따라 국학'(지금의 개성향교)이 개성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성의 국학은 얼마 후 국자학'으로 바뀌었고, 다시 국자감' 그리고 생균감'이라 부르다가 마침내 생균관'으로 바뀌었다. 그 후 조선조가 세워지며 국가체제가 완비되면서 국립대학으로서의 성균관은 한양천도와 함께 지금의 서울 명륜동 수선지지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고구려의 태학으로부터 조선조의 성균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유교경전이 주요 교과목이었고, 건물의 배치와 구조가 모두 한결같다는 사실이다. 임금은 등극을 하게되면 반드시 이 곳을 찾아 문민정치를 다짐하기도 하였다.

국립대학에는 반드시 문묘가 있다. 문묘에는 성현을 모신 사당이다. 가정에 가묘'(家廟)가 있다면, 학교에 문묘'(文廟)가 있고, 나라에 종묘'(宗廟)가 있음이 특징이다. 가묘를 받드는 주체는 아버지이고, 문묘를 받드는 주체는 스승이며, 종묘를 받드는 주체는 임금이 된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스승과 임금, 즉 군·사·부(君師父)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국가통치의 근간으로 삼았다. 우리나라 문묘에는

전통적으로 중앙에 성인이신 공자를 모시고, 안자·자사·증자·맹자 등 버금가는 성인과 공자의 제자 10철·송대의 6현 그리고 우리 동방 18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특히 우리 동방 18현은 설총·최치원·안향·정몽주·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김인후·이이·성혼·김장생·조헌·김집·송시열·송준길·박세채 등으로 고려조 인물부터 모두 태학이나 성균관 출신이다. 어느 나라 어느 대학도 자기의 문인학자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정기적인 석전(釋奠)이나 매월 초하루·보름을 기해 분향례(焚香禮)를 올리며 스승을 높이 받드는 나라 또는 대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나라의 성균관과 그리고 남한의 234개 향교만이 이러한 문묘가 설치되어, 성균관과 일체를 이루며 일종의 종교적 의식을 거행하여 왔던 것이다. 임금 역시 등극을 할 경우 문묘에 들러 문민통치를 결의한 곳이기도 하다. 근자에는 성균관이 문화관광부의 종교단체로 등록되어 종교적 활동양상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종교의 정의도 다양하므로 종교성여부는 별도 논의되어야 함) 뿐만 아니라 권당'을 통한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시위 등 정치적 영향력 또한 대단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유교에서의 대학체제는 국가통치의 주요한 기능이었음을 말해 준다.

3. 국가체제와 왕도

유교의 정치이론에는 절대적 존재인 하늘과 떨어질 수 없는 천명정치사상이 내재해 있다. 임금은 천명을 받아야 취임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그 사람에게만 무조건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천명을 받을 수 있는 충분조건은 민심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민심이 천심이니 만큼, 천명은 민심·민의를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에 있어 왕도는 무엇보다 민심에 따른 정치가 된다. 결국 하늘과 백성과 왕이 삼위일체를 이룰 때 비로소 이상적인 상태의 국가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이와같이 유교의 정치이론은 하늘과 불가분적 관계여서 유교는 정치의 종교적 성격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은 어디까지나 민심이다. 그러나 민심은 쉽사리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맹자가 말한 바와 같이 백성들이 가슴에서 저절로 기꺼운 마음이 울어나 진실로 따르고자하는 정치이어야 한다. 맹자는 이상적인 정치인 왕도를 공자의 70여 제자가 항상 공자를 따르는 현상'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이는 왕도정치에 있어 임금과 백성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로써, 왕도를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 따른 교학정치(敎學政治)에 적용한 것이다. 제자가 스승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백성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그 임금을

선택하고 따르는 정치체제가 곧 왕도가 된다. 왕도의 핵심적 내용은 ‘언정’ 또는 ‘선정’에 있다. 그것은 백성을 마치 강보에 쌓인 갓난아이를 보살피듯 아끼고, 큰 제사를 받들 듯 백성들에 대하여 경건히 임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인정의 핵심은 경제적 안정에 있다. 경제적 기반 없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는 난감한 일이기 때문이다. 왕도에서는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정전법이라는 토지제도를 마련한 바 있고, 세금제도의 현실화 역시 필연적이었다.

그러나 왕도정치에는 효율적인 국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 구성체 원리가 존재한다. 하나는 왕도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체계이다. 도의 원리는 그 원천이 하늘에 있으므로 천도’(天道)가 되는데, 국가체계에 관한 한 천도’는 천명에 따른 왕도가 된다. 이 말은 『서경』 주서의 홍범편에 나오는 홍범구주’(洪範九疇)를 가리킨다. 홍범은 커다란 법칙으로 9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채침(蔡沈)은 그것을 천하 다스리는 대경대법(大經大法)이라³³⁾ 정의하였으니, 적어도 천하를 다스리는 왕도의 원리를 말한다. 채침의 서문에 따르면,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를 토벌한 다음, 기자(箕子)를 찾아가 천도’를 물었는데, 이 때 기자가 설파한 내용이 바로 홍범구주라는 것이다. 홍범구주는 1. 오행(五行:水火木金土), 2. 오사(五事:貌·言·視·聽·思), 3. 팔정(八定:食·貨·祀·司空·司徒·司寇·賓·師), 4. 오기(五紀:歲·月·日·星辰·曆數), 5. 황극(皇極), 6. 삼덕(三德:正直·剛極·柔極), 7. 계의(稽疑:比·冢·開·安·開·咎·咎·咎), 8. 서징(庶徵:休徵·咎徵), 9. 오복육극(五福:壽·富·康寧·攸好德·考終命, 六極:凶短折·疾·憂·貧·惡·弱)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되고 있다. 결국 천하를 다스리는 대도, 즉 왕도정치의 기본원리를 제시한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체계인데, 이것은 [주례]나 [서경] 주서 주판편에 나타난 주나라 시대의 국가체계를 말함이다. 거기에는 1. 천관총재(天官冢宰), 2. 지관사도(地官司徒), 3. 춘관종백(春官宗伯), 4. 하관사마(夏官司馬), 5. 추관사구(秋官司寇), 6. 동관사공(冬官司空, 考工記) 이다. 이는 홍범구주의 팔정’과 관련이 있는 데, 모두 국가의 조직체계를 자세하게 갖춘 제도이다. 때에 따라 국가체계는 사람의 형상에 비유되기도 하였다. 국가의 원수(元首)는 사람의 머리로, 수상(首相)은 사람의 목이요, 경(卿)은 팔다리(股肱)이고, 백성은 몸통이 된다. 이것은 인간의 형상과 국가의 체계에 적용된 국가의 원형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첫째 무왕이 기자에게 천도’를 물었다고 하는 대목인데, 이 때의 천도가 바로 천하 다스리는 왕도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왕도 자체만으로도 천하 다스리는 대경대법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굳이 천도’라는 말로 표현한 것은 왕도정치의 기본원리가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정치의 종교적 성격

33) 『書經』序文：“治天下之大經大法 皆在此書也”

(政教一致)을 벗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맹자가 천자의 자리는 하늘이 주었고 백성이 주었다는 말이나, 천자라는 표현 자체의 의미로 보나, 유교의 정치원리는 어디까지나 천·왕·민 삼자의 일체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맹자에 의하여 왕도의 원형을 70여 제자가 스승인 공자를 따르는 모습에 비유한 점과, 주자가 『대학』 서문에서 충명예지의 그 성품을 다한 성인이 나타나면 하늘이 그에게 명하여 가르치고 다스리게 하여 백성들의 착한 본성을 회복시키도록 하였다는 점과, 『맹자』의 양혜왕장하에서 “하늘이 이 백성을 내신다음 임금을 만들고 스승을 만들었다”³⁴⁾ 라는 대목을 통하여 정치와 교육이 하나임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착한 본성을 회복시킨다는 공동의 목적을 지향한다. 이러한 점에서 유교적 원리는 천도에 따른 정치적·교육적 통일성의 구현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오늘날 정치에 있어 종교가 가지는 힘은 적지 않다. 이른바 민주화시대를 맞이하여 종교인도 여론의 일익을 점하는 유권자로서 정치와 상호관계를 형성하며 그 정치적 영향력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종교인은 수천만에 이른다. 이들은 정치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 득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종교는 다시 정치인을 교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된다. 따라서 정치의 종교교육적 구현은 한국종교의 커다란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가 지금까지 전개한 유교의 정치사상과 교육이론을 바탕으로 한 종교적 구현이론은 결국 정치와 교육과 종교의 철학적 통일성의 구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교의 정치이론은 가족공동체이론에 기초한다. 유교에서 흔히 말하는 천명론'이나 민본론' 그리고 왕도론'등은 모두 천·왕·민의 삼위일체라는 가족공동체이론의 일환이었다. 하늘은 어버이요, 왕은 천자(天子)이며, 백성은 중자(衆子)라는 가족관계가 성립된다. 이와 같이 유교에 있어서 국가는 하나의 커다란 가족공동체인 것이다. 그렇다고 그 가족공동체이론이 정치이론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이론뿐 아니라 경제·교육·윤리·종교적 이론에 있어서도 가족공동체이론은 적용된다. 그러므로 가족공동체적에 관한 한 정치이론은 교육이론과 철학적으로 일치된 입장이며, 종교성파도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유교에 있어서의 정치는 교육이고 교육은 곧 정치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정치

34) 『孟子』梁惠王章句下：“天降下民 作之君作之師”

의 목표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성을 회복함에 그 목적을 둔다면, 교육의 이념 역시 인간성 회복에 있다. 인간성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하늘로부터 - 잉태하여 태아로부터 - 착한 인간의 성품을 지니고 있었으나, 탄생이후 보통사람은 그 온전히 성품을 간직하지 못하고 성인에 의하여 그 하늘의 뜻, 곧 착한 본성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공동체 이론과 교육적 개별자 이론을 매개하고 절대적 가치로 설정한 것이 하늘이라는 개념이었다. 정치는 하늘의 뜻을 구현하는 일이며 교육의 핵심도 하늘의 뜻과 합일하려는 이론적 근거인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와 교육은 하늘이라는 절대적 자연적 존재에 의하여 매개되며 그 절대성에 의하여 도덕성이 구현되는 것임을 말해 준다. 가정의 도(家道)에는 먼저 어버이부터 모범이 되는 부도(父道)가 있고, 교육에는 사도(師道)가 있으며, 정치적 구현에는 왕도가 있는 바, 군·사·부(君師父) 일체가 성립된다. 이러한 유교의 공동체 이론은 하늘을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여 정치와 교육적 합일을 이루며 마침내 종교교육적 구현을 이루고자 하는 변증법적 통일성을 지닌다 하겠다.

《참고문헌》

- 四書(『大學』, 『論語』, 『孟子』, 『中庸』)
 五經(『詩經』, 『書經』, 『周易』, 『禮記』, 『春秋』)
 『周禮』
 『聖學輯要』(李珣)
 梁啓超, 『先秦政治思想史』, 臺北: 中華書局, 民國48.
 牟宗三, 『中國哲學特質』, 臺北: 人生出版社, 民國52.
 勞思光, 『中國哲學史』, 臺北: 三民書局, 民國70.
 尾形勇, 『中國古代의 '家'와 '國家』, 東京: 岩波書店, 1979.
 안병주 외역, 『신역맹자』, 서울: 현암사
 안병주, 『유교의 민본사상』, 서울: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1987.
 금장태, 『유교사상과 유교문화』, 서울: 전통문화연구원, 1996.
 구분명, 『중국사상의 원류체계』, 서울: 대왕사, 1982.
 윤근식, 「정치와 종교」, 『정치학사전』, 서울: 박영사, 1980.
 이계행 역,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 서울: 한국경제신문, 1996.
 이희재 역, 새뮤얼 헌팅턴, 『문명충돌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7.
 김태길, 『윤리학』, 서울: 박영사, 1981.
 김미숙 외역, 앤터니 기든스, 『현대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2001.

- 박원기 역, 토마스 오데아, 『종교사회학』, 서울: 이대출판부, 1993.
- 황경식, 『개방사회의 사회윤리』, 서울: 철학과현실사, 1997.
- 송천은, 『열린시대의 종교사상』, 익산: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2.
- 임효선, 『삶의 정치사상』, 서울: 한길사, 1984.
- 김상태, 『종교와 윤리』, 서울: 요안출판사, 1997.
- 이한수, 『현대사회와 종교윤리』, 서울: 바울, 1991.
- 도성달 외, 『한국의 교육과 윤리』,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이돈희 외, 『현대사회와 교육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1994.
- 최병철, 유가경전에 나타난 국가의 형성이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Political theory in Confucianism and its realization like method of the religion education

Choi, Byung-chul

(Chungju University)

《Abstract》

Confucian political theory has the idea, T'ien Ming'(天命) thought, that all political decision are derived from Heaven, the absolute being. As a result King is inaugurated by T'ien Ming that are entirely dependent on people's minds'(民心), we have appreciated.

Therefore people's minds are stressed first of all in the political road of king'(王道). In the end the ideal community of nation can be formed just when heaven, people and king achieve trinity(天·王·民 三位一體)'. Then we can see a religious pattern in the relations of undivided national units.

But the most important unit of nation is people's mind that can't be easily grasped. Only when king plays a role from his mind that loves his people as beings to be loved just as Mencius already proposed that idea, the emperor can be only by people's minds. Mencius compared the political road of king as ideal system to Confucius' disciples more than seventy following him. This is the new proposal of political paradigm that the ideas of road of king is adjusted to the relations of teaching and learning. In this system people choose their king on their own judges just as the disciples choose their teachers.

In the meanwhile there are the principles of members to perform the community of nation, which are one of the ideas of road of king, and the form of nation. The former is described on the above, the latter is the form of nation from T'ien Ming which is called nine categories of wide models(洪範九疇)

The religious performance of political affairs and education in Confucianism includes the theory that our problem can be solved by recovering our good nature'(道德性 恢復). In a sense the fact is proved that there is the performance of the unity between politics and religion through T'ien Ming.

In conclusions the absolute value in Confucianism is to realize the concept of

T'ien, and politics and education are intermediated by T'ien as the absolute and natural being, and the quality of religion is formed by natural morality. For example there is father's way in the family, teacher's way in the education, and the trinity of king, teacher and father for the realization of politics, which represents that there is the dialectic seek of unity in various sides in Confucianism.

Key Words: T'ien Ming, People's minds, Heaven, People and King achieve trinity, Nine categories of wide models, Recovering our good nature.